

Mergers & Acquisitions

Deal list 집계기준

- 2개 이상 거래주체(법인, 개인 등)의 경영 참여 및 사업·영업·자산 양수도 거래(자원개발 분야 포함)를 집계대상으로 삼는다.
-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자산 본래의 용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 경영 참여와는 관련이 없는 주식거래(IPO 및 유상증자 포함) 혹은 채권거래(CB·BW포함) 등은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참여의 조건은 경영권 지분 인수 및 이사회 참여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 참여라고 인정될 시에는 기업 인수에 포함한다.
- 거래대상 또는 매각주체(합병주체) 또는 인수주체(피합병주체) 중 1곳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거래만을 집계한다. 거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크로스보더 거래로 분류한다.
- 거래 성격에 따라 '기업인수'(Corporate Acquisition), '기업합병·분할'(Corporate Merger & Consolidation, Split), 'SOC·부동산'(SOC & Real Estate)으로 나눠 집계한다.
- 'SOC·부동산'(SOC & Real Estate)은 경영 참여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SOC, 부동산, 건물·토지 등의 거래를 의미한다.
- 단 골프장, 호텔 등 거래 대상 부동산의 본래적 용법을 계속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 거래 형태가 아니라도 M&A 거래로 인정한다.
- 자원개발권 또는 수익권 향유를 계속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지분 거래는 원칙적으로 M&A 거래로 인정한다.
- '거래시기'에 따라 각각의 달을 '공표거래'(Announced Deal)와 '완료거래'(Completed Deal)로 분류한다.
- '공표거래'는 잔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공표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공표일자'란 거래대상자가 확정된 시기,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이나 본계약 체결일 등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이나 합병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일을 의미한다.
- '완료거래'는 공표일과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완료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완료일자'란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 합병거래의 경우 합병기일을 의미한다.
- 거래금액은 원화로 집계하며 집계되는 거래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거래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환율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 주식회사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된 주식 지분의 가치를 의미한다.
- 사업·영업·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양수의 댓가로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지분과 부채가 함께 거래된 경우 부채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내용에 부채 상환을 예정한 경우에는 부채도 거래금액에 포함한다.
- 기업합병 거래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 기업분할 거래의 경우 분할되어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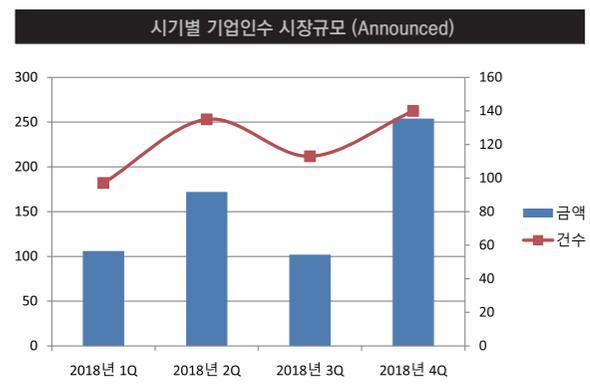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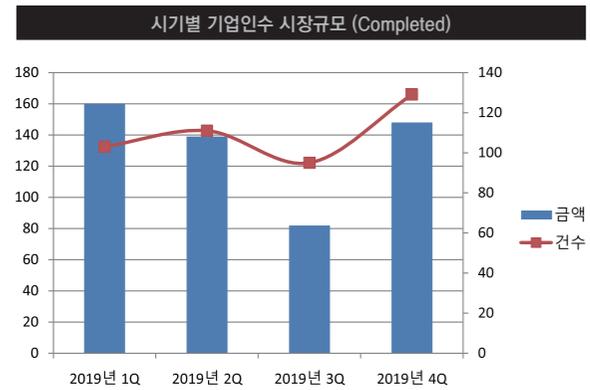
League Table 작성기준

- 금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구분하고 '공표거래'와 '완료거래'를 분리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다.
- 금융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금액'을 실적집계 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건수'와 '금액'을 동등한 비율로 실적집계에 반영한다.
- 계열사나 관계사간 M&A 거래는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회사가 M&A 거래 당사자와 계열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 경우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계법인이 거래 일방의 금융자문과 회계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회계자문을 금융자문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회계자문 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수의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자문을 맡았을 경우, 전체 거래금액(또는 거래건수)을 자문회사 수로 나눈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자문회사별 업무 관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을 통해 실적금액 반영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자문계약을 맺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정해 MOU 이상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거래의 진실성과 자문역할에 대한 평가는 자문사를 고용한 의뢰기업(의뢰인)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
- 자문계약 관계가 실재하더라도 의뢰기업(의뢰인)이 자문역할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표거래'가 집계기간내 파기될 경우 시기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내역은 각주 등으로 별도 표기한다.
- 분기별 집계실적은 반기 및 연간실적을 집계하면서 거래성사여부,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재확인해 이를 최종 반영한다.

Overview

2019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키워드는 '빅딜 기근' 이었다. 2018년 대비 건수는 늘어난 반면 거래 규모가 줄어든 점이 이를 반영함. 조 단위 거래가 꾸준히 등장했지만 2018년 시장을 달군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거래에 버금가는 '임팩트'는 없었다는 평가. 다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4분기에 누그러진 점은 위안거리.

2019년에도 대형 PE의 약진이 눈부셨음. 특히 MBK파트너스는 조 단위 거래에 여럿 등장하며 큰 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함. 오렌지라이프·코웨이 매각도 성공적으로 끝냄에 따라 실속도 챙겼다. 자문사의 희비는 엇갈렸음. 법률 자문 경우 김앤장의 독주가 이어진 반면 금융 자문에선 골드만삭스가 처음 왕좌에 올랐음.



[총론] 조단위 빅딜 기근속 4분기 반등 '위안거리'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완료 기준 총 438건, 총 53조119억원 상당의 M&A가 이뤄졌음. 2018년 대비 56건 더 거래가 있었지만, 거래금액은 6조2995억원 가량 줄었음. 굵직한 빅딜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는 평가.

2019년에도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오렌지라이프·쉬완스컴퍼니(Schwan's Company)·코웨이(MBK파트너스→웅진씽크빅)·롯데카드 등 조 단위 거래가 있었지만, 2018년 M&A시장을 주도한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거래(약 20조원) 정도의 메가딜은 등장하지 않았음.

크로스보더 거래도 활발했음.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19년 M&A시장 내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28% 수준임. 이중 아웃바운드(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는 15%. 그 반대인 인바운드는 13% 가량이었음.

오렌지라이프와 코웨이의 매각을 끝낸 MBK파트너스는 하반기에도 성공적 엑시트를 추가함. MBK파트너스는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맥쿼리PE에 매각했음. 1조3000억원 정도에 사들인 대성산업가스를 2년 반 만에 2조5000억원 이상에 팔았음. MBK파트너스와 맥쿼리PE는 현재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로, 해당 거래는 발표기준으로 반영됐음.

법률자문 시장은 김앤장(조정점유율 22.61%)의 독주가 계속된 가운데 2위 싸움이 치열했음. 2위 경쟁은 0.3%p로 희비가 엇갈렸음. 태평양이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조정점유율 13.45%로 김앤장의 뒤를 이었고, 3위는 세종이 차지했음. 금융자문의 경우 더벨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 2010년 후 골드만삭스가 처음 왕좌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음. 2위 모간스탠리를 1조원 이상 따돌리며 확고한 선두에 올랐다는 평가. 회계 자문 분야에서

는 딜로이트안진이 정상에 등극함.

[인수금융] 박빙 승부 미래대우 vs NH, 치열한 접전 지속

올해 국내 M&A 인수금융 시장에서는 선두를 둘러싸고 두 대형 증권사의 박빙 승부가 또다시 연출됐음. 주선 규모로는 앞섰지만 건수에서는 다소 밀린 NH투자증권이 미래에셋대우에 선두 자리를 내줬기 때문. 다만 조정점유율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치열한 접전을 방불케 했음. 지난해 12위였던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적투자자(SI) 딜을 다수 수행하며 3위로 화려하게 귀환함.

31일 더벨이 집계한 2019년 국내 M&A 인수금융 주선 시장 규모는 22조31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음. 프로젝트 건수로는 83건이었음. 지난해에는 75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주선 규모가 14조원 대에 그쳤던 데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 올해 상반기중에는 10조9698억원, 하반기중에는 11조3413억원의 주선거래가 이뤄져 상·하반기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수금융 주선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 모두 19건의 주선 거래를 통해 2조9677억원의 주선실적을 쌓았음. 규모면에서는 2위인 NH투자증권보다 다소 적었지만 주선 건수에서 따돌렸음. 건수와 금액을 평균한 조정점유율은 13%였음. NH투자증권은 조정점유율 면에서 미래에셋대우에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2위에 머물러야 했음.

사실 규모로만 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3조4426억원의 거래를 주선해 미래에셋대우보다 5000억원 가량이 더 많다. 하지만 건수 면에서 13건을 기록, 19건의 미래에셋대우보다 조정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음. 한국산업은행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7위를 기록하며 선두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조정점유율 3위에 오

르는 기염을 토함. 4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은 매년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코웨이에 발목이 잡힌 한국투자증권은 5위에 머물렀음.

[금융자문] 나락 떨어졌던 골드만삭스, 빅딜 쓸어담고 '권토중래'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모멘티브, 지오영, 웅진코웨이 등 수조원대 인수·합병(M&A) 매각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금융 자문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올랐음. 더벨이 2010년 이후 리그테이블을 집계한 이후 골드만삭스는 처음으로 1위 자리를 거머쥐게 됐음.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완료(잔금납입) 기준 2019년 6조3699억원(거래건수 7건)으로 금융 자문분야 1위에 올랐음. 2위 모간스탠리와는 금액 격차를 1조원 이상으로 벌리며 확고한 선두 지위를 굳혔음.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22위에 자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1계단 급상승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

골드만삭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 1위 명성에 걸맞는 실적을 보였다는 평가. 정형진 대표 중심의 조직 재정비로 인해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어느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공동대표였던 최동석 대표가 2017년 퇴사한 후 정 대표를 필두로 조직 개편에 나섰다. 바 있음.

새해에도 골드만삭스의 활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시장에 알려진 빅딜 2건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거래 성사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골드만삭스는 M&A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푸르덴셜생명에서 매각 측 자문에 관여하고 있음.

[법률자문] 왕좌는 역시 '김앤장'...넘버투 쟁탈전, 태평양 신승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법률자문 분야 2위 쟁탈전이 치열했음. 분기마다 순위가 뒤바뀌는 접전이 이뤄졌음. 0.3%포인트 박빙 구도가 이뤄진 가운데 태평양이 지난해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했음. 세종은 광장을 밀어내고 3위로 도약했음.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김앤장은 거래완료 기준 조정점유율 22.61%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 총 93건을 수입해 20조1300억원의 자문 실적을 기록. 순위는 타임차지(자문시간에 비례해 수입료를 책정하는 방식)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로펌 특성에 맞춰 자문금액과 건수를 동시 반영한 조정점유율로 매겨졌음.

김앤장은 조 단위 빅딜에 대다수 이름을 올리며 '명가'의 진가를 보여줬다는 평가. 올 초 MBK파트너스의 오렌지라이프(2조2900억원), 코웨이(1조6850억원) 매각, 한온시스템의 마그나인터내셔널 그룹 유압제어사업부(1조3810억원)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법률자문사를 압도. KKR의 KCFT 매각, 롯데그룹의 롯데카드 매각 등 굵직한 거래에 법률자문을 제공했음. 조 단위 딜인 지오영의 매각측과 인수측을 모두 대리하는 성과를 올렸음.

2위는 태평양이 차지했음. 올해 매 분기 2~4위 간 순위가 뒤바뀌는 접전 속에서도 2위 자리를 수성하는데 성공했음. 막판 4분기 조 단위 딜을 연달아 성사시킨 저력이 빛을 발했음. 태평양은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2조5000억원), 하나은행의 베트남 BIVD 투자(1조원) 등을 법률자문했음.

올해 김두식 대표 변호사가 복귀하며 '명가의 재건'을 꿈꾼 세종은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선방했음. 세종은 독일 린데그룹이 린데코리아 지분 100%를 1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작업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했음. SJL파트너스·원익QnC·KCC 삼각편대의 모멘티브 인수 딜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며 1조7500억원의 크레딧을 부여

받음. 2017년 조정점유율 7.76%에서 지난해 말 10.06%를 기록하던니 이제는 광장을 제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줌.

지난해 2위를 기록한 광장은 올해 4위에 그쳤음. 광장의 올해 조정점유율은 13.13%로 2위인 태평양과 0.32%포인트 차에 불과했으나 순위상으로는 4위를 기록했음. 5위와 6위는 율촌과 지평이 차지했음. 율촌은 웅진씽크빅의 코웨이 인수(1조6850억원) 자문, 유니스캐피탈의 공차코리아 매각자문(3500억원) 등을, 지평은 산업은행의 동부제철 매각자문(3600억원) 등을 수행했음.

[회계자문] 딜로이트안진 1위 등극...4년 만에 용상 탈환

딜로이트안진이 올해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분야 정상에 등극. 2015년 이후 4년 만의 왕좌 탈환임. '홍중성 대표 체제' 첫 해 경쟁사를 제치고 정상에 등극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 삼일PwC가 그 뒤를 바짝 쫓았지만 거래 규모에서 딜로이트안진에 밀렸음. 2017년 이후 내리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일PwC는 올해도 2위에 머물렀지만, 거래 건수에선 경쟁사를 압도. 딜로이트안진과 삼일PwC의 2강 구도가 확연한 한해였음.

31일 더벨이 집계한 2019년 회계자문 부문 M&A 리그테이블(완료 기준)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완료기준 조정점유율 27.94%로 1위를 기록. 거래 건수는 35건, 거래규모는 16조3693억원임. 딜로이트안진이 수입한 딜 35건 가운데 6건이 조단위 딜이었음.

이렇다 할 빅딜 실적 없이 주춤했던 3분기를 빼고는 매 분기 큰 성과를 내며 경쟁사의 추격을 따돌렸음. 딜로이트안진이 회계자문을 제공했던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2조2989억원) 거래, MBK파트너스의 코웨이 매각(약 1조6850억원) 거래가 올해 1분기 마무리됐음.

지난해 연간 기준 2위였던 삼일PwC는 올해도 같은 자리를 지켰음. 다만 삼일PwC는 올 한 해 63건의 딜(거

2019년 상위 10개 거래(완료 기준) (단위: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매각자	인수자	거래금액	성격
1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KCC : &원익QnC&SJL파트너스	3,500,000	크로스보더
2	오렌지라이프 59.15%	MBK파트너스	신한금융지주	2,298,900	
3	Schwan's Company 지분 70%	개인주주	CJ제일제당	1,886,673	크로스보더
4	코웨이 지분22.17%	MBK파트너스	웅진씽크빅	1,685,000	
5	Magna International Inc. FP&C사업부	Magna International Inc.	한온시스템	1,381,290	크로스보더
6	롯데카드 : 구주79.83%	롯데그룹	MBK Partners :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381,000	
7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현대중공업지주	외국 기업 : 사우디 아람코	1,374,912	크로스보더
8	린데코리아	Linde Group	IMM프라이빗에쿼티	1,300,000	
9	Vin Group 소수지분	Vin Group	SK	1,200,000	
10	지오영 구주 46%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	블랙스톤	1,100,000	크로스보더

래 규모 9조원)에 관여하며 딜로이트안진과 비교해 거의 두 배의 거래건수를 쌓아올렸음. 삼일PwC가 관여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M&A거래는 웅진씽크빅의 코웨이 지분 22.17% 인수(1조6831억원) 건임.

3위는 삼정KPMG로 45건의 거래에 관여했음. 거래 금액은 11조1200억원으로 삼일PwC를 압도. 삼정KPMG는 CJ제일제당의 쉬완스컴퍼니 인수(1조8867억원), 한온시스템의 마그나 인터내셔널 인수(1조3813억원), SK의 베트남 빈그룹 인수(1조2000억원) 등 굵직한 거래에 자문사로 활약했음.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EY한영은 올해 4위로 떨어졌음. 거래 건수는 24건, 거래 규모 5조8419억원, 조정점유율 13.01%. EY한영은 LG전자(엘지히타치위터 솔루션, 하이엔텍) M&A에서 매도자측에 자문을 제공해 2500억원의 실적을 추가했음. EY한영 역시 굵직한 거래에 다수 관여했지만, 거래 건수 면에서 나머지 세 곳 경쟁사의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했음.

[합병·분할·JV] 김앤장 공고한 독주체제...광장·세종 뒤이어

2019년 국내 합병·분할·조인트벤처(JV) 자문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해외'였음. 국내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현대자동차·LG·네이버 등 대기업은 해외에 현지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 기술개발과 신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음. 해당 분야 자문시장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뒤를 따르는 모습.

31일 더벨이 집계한 2019년 기업 합병 거래(분할 및 JV 포함) 규모는 완료기준 9조1994억원·발표기준 19조4349억원을 기록. 합병 거래 건수는 완료기준 44건·발표기준 46건으로 집계됐음. 특히 하반기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한 해외 JV거래의 본계약들이 속속 체결되며 발표기준 시장 규모가 커졌음.

한편 올해 하반기 들어 계약이 진행된 국내 대기업들의 국경간 JV 거래는 발표기준 거래내역에 반영됐음. 발표기준 거래액 1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애플

티브(APTIV) 사이의 4조8000억원 규모의 JV설립 거래는 물론, LG화학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2조원대 전기차 배터리 JV 설립 등이 그 대상임.

합병·분할·JV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법률자문사는 김앤장이었음. 김앤장은 완료기준(16건·4조7790억원)과 발표기준(15건·9조4489억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 특히 김앤장은 올해 완료된 합병거래 중 가장 컸던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을 마무리지은 데 이어, 내년 거래 종결이 예정된 현대차-애플 JV 설립의 자문실적도 예약해놓은 상황.

김앤장의 뒤를 따른 법률자문사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광장이었음. 장은 올해 5건·2조3660억원의 거래를 완료해 2위에 오름. 3위는 완료기준 3건·6986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세종이 차지했고, 율촌과 화우는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됐음.

[부동산자문] 크로스보더·리츠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도 활발

2019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조(兆) 단위 대형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경간 거래(크로스보더 딜)와 리츠(REITs) 관련 거래가 풍성해 전체 시장은 활발했음. 가장 많은 부동산 자문을 완료한 자문사는 법무법인 세종이었고,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는 평가.

31일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부동산 거래시장 규모는 완료기준 105건·19조2045억원으로 82건·18조3404억원을 기록한 2018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였음. 발표기준으로는 올 한 해 112건·27조1956억원의 거래가 집계돼 지난해 시장 규모인 83건·19조142억원에 비해 30% 넘게 성장했음.

올해 완료기준으로 가장 금액이 컸던 거래는 미래에셋대우가 프랑스 아문디아와 함께 인수한 마중가 타워 인

수거래였음. 거래 총액이 1조830억원에 달하는 해당 거래는 상반기 중 본계약이 진행된 뒤, 7월 들어 거래가 종결됐음. 마중가 타워의 뒤를 이은 2·3위는 서울스퀘어 빌딩 거래와 이마트 전국 점포 13곳의 패키지 거래였음.

이처럼 거래규모 10위권 내에 위치한 거래들 중에서는 유럽 등 해외에서 진행된 크로스보더 거래와 리츠 등 자산유동화성 거래가 다수 눈에 띄었음. 난 수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증권사들은 국내보다 해외에 눈을 돌렸고,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던 일부 대기업들은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재무전략을 택한 영향이라는 평가.

올 한 해 가장 많은 부동산 자문 실적을 올린 법률자문사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30건·4조7338억원의 거래를 완료해 1위에 올랐음. 세종은 발표기준에서도 31건·6조3162억원의 거래를 자문하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음.

1위 세종의 뒤를 추격하는 2위는 넥서스다. 부동산과 국제중재 업무를 양대 축으로 삼아온 넥서스는 지난 해 완료·발표기준 모두 4위에 그쳤지만, KT AMC-BC카드 컨소시엄의 씨밋타워 인수자문(8578억원)과 KB자산운용의 종로타워 인수자문(4637억원) 등 시장의 관심을 사로잡은 거래들을 다수 자문하며 올해 실적을 쌓음.

완료기준 3·4·5위는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순이었음. 한편 삼성KPMG는 국내 인수자들의 해외 부동산 인수 밸류에이션 자문을 다수 수행해 EY한영과 삼일PwC 등 다른 회계법인들을 제쳤고, 삼성증권은 씨밋타워 매각자문과 홈플러스스토어즈(점포 유동화) 거래 등에 참여해 부동산 금융자문 1위를 차지했음.

2019년 상위 10개 거래

완료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발표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모멘티퍼포먼스 머티리얼	KCC : &원익QnC&SJL 파트너스	3,500,000	크로스보더	1	우아한형제들	Delivery Hero	4,800,000	크로스보더
2	오렌지라이프 59.15%	신한금융지주	2,298,900		2	대성산업가스	백쿼리PE[F] : 백쿼리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펀드	2,500,000	크로스보더
3	Schwan's Company 지분 70%	CJ제일제당	1,886,673	크로스보더	3	아시아나항공	컨소시엄 [Consortium(국내)]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2,500,000	
4	코웨이 지분22.17%	웅진씽크빅	1,685,000		4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2,086,178	
5	Magna International Inc. FP&C사업부	한온시스템	1,381,290	크로스보더	5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1,500,000	
6	롯데카드 : 구주 79.83%	MBK Partners :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381,000		6	롯데카드 구주 79.83%	MBK Partners :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381,000	
7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외국 기업 : 사우디 아랍코	1,374,912	크로스보더	7	현대오일뱅크 지분 17%	외국 기업 : 사우디 아랍코	1,374,912	크로스보더
8	린테코리아	IMM프라이빗에쿼티	1,300,000		8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컨소시엄[Consortium(국내)] : 현대오일뱅크 +코람코자산신탁	1,363,500	
9	Vin Group 소수지분	SK	1,200,000		9	해브앤비 구주 66.66%	Estee Lauder	1,319,288	크로스보더
10	지오영 구주 46%	블랙스톤	1,100,000	크로스보더	10	린테코리아	IMM프라이빗에쿼티	1,300,000	

2019년 누적 기업인수 · 매각자문

기업인수 · 매각 금융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점유율(%)	건수
1	골드만삭스	6,369,935	11.31	7
2	모간스탠리	6,351,108	11.28	9
3	JP모간	4,354,902	7.73	5
4	BOA메릴린치	4,306,202	7.65	5
5	삼성증권	4,172,952	7.41	8
6	UBS	4,118,200	7.31	2
7	크레디트스위스	3,689,133	6.55	6
8	씨티글로벌마켓증권	3,243,897	5.76	7
9	딜로이트 안진	3,027,489	5.38	15
10	삼정KPMG	2,857,417	5.07	25
11	삼일PwC	2,653,201	4.71	45
12	Piper Jaffray	1,886,673	3.35	1
13	Moelis&Company	1,750,000	3.11	1
14	HSBC	1,536,150	2.73	3
15	SC증권	890,000	1.58	4
16	베인&컴퍼니	750,000	1.33	1
17	언스트앤영 한영	715,800	1.27	6
18	도이치뱅크	650,000	1.15	2
19	Rothschild	503,184	0.89	1
20	노무라	500,000	0.89	1
21	KR&Partners	352,700	0.63	8
22	Kidder Williams Ltd.	183,591	0.33	1
23	한국산업은행	166,489	0.30	3
24	Otium Capital	165,033	0.29	1
25	다이하증권	143,384	0.25	2
26	BDA파트너스	140,000	0.25	1
27	Raiffeisen Investment AG	123,352	0.22	1
28	Lazard	109,563	0.19	2
29	선일회계법인	105,000	0.19	7
30	큐더스	103,972	0.18	2
31	Capital Times	90,000	0.16	1
32	삼덕 회계법인	71,800	0.13	1
33	Locus Capital Partners	56,863	0.10	2
34	성도이현 회계법인	45,800	0.08	3
35	대신증권	43,000	0.08	2
36	KB증권	29,000	0.05	1
36	SSI securities corporation	29,000	0.05	1
38	원진회계법인	20,000	0.04	1
39	에스비파트너스	15,000	0.03	1
40	Mitsubishi UFJ MS	0	0.00	1
계		56,319,792	100.00	196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기업인수 · 매각 금융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14,889,041	21.41	14
2	크레디트스위스	9,476,876	13.63	12
3	골드만삭스	7,110,935	10.23	7
4	씨티글로벌마켓증권	4,277,841	6.15	9
5	삼일PwC	3,796,146	5.46	49
6	딜로이트 안진	3,392,489	4.88	16
7	BOA메릴린치	3,274,912	4.71	5
8	미래에셋대우	3,230,000	4.64	2
9	Lazard	2,959,563	4.26	4
10	삼정KPMG	2,598,046	3.74	22
11	삼성증권	2,487,952	3.58	6
12	한국산업은행	2,245,139	3.23	3
13	JP모간	2,096,602	3.01	5
14	HSBC	1,171,950	1.69	3
15	도이치뱅크	1,089,200	1.57	3
16	베인&컴퍼니	750,000	1.08	1
17	언스트앤영 한영	745,800	1.07	7
18	UBS	618,200	0.89	1
19	Rothschild	503,184	0.72	1
20	BNP파리바	439,200	0.63	1
21	SC증권	390,000	0.56	3
22	KR&Partners	352,700	0.51	8
23	Piper Jaffray	350,000	0.50	1
24	Kidder Williams Ltd.	183,591	0.26	1
25	Otium Capital	165,033	0.24	1
26	다이하증권	143,384	0.21	2
27	BDA파트너스	140,000	0.20	1
28	큐더스	132,972	0.19	3
29	Raiffeisen Investment AG	123,352	0.18	1
30	Capital Times	90,000	0.13	1
31	삼덕 회계법인	71,800	0.10	1
32	선일회계법인	60,300	0.09	5
33	성도이현 회계법인	50,000	0.07	2
34	대신증권	43,000	0.06	2
35	KB증권	29,000	0.04	1
35	SSI securities corporation	29,000	0.04	1
37	원진회계법인	20,000	0.03	1
38	Locus Capital Partners	14,863	0.02	1
39	Mitsubishi UFJ MS	0	0.00	1
계		69,542,073	100.00	208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기업인수 · 매각 회계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 (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딜로이트 안진	16,905,931	37.25	36	18.56	27.90
2	삼일PwC	10,061,457	22.17	64	32.99	27.58
3	삼정KPMG	11,195,601	24.66	46	23.71	24.19
4	언스트앤영 한영	5,849,133	12.89	24	12.37	12.63
5	선일회계법인	83,400	0.18	6	3.09	1.64
6	현대 회계법인	757,700	1.67	2	1.03	1.35
7	서우회계법인	243,279	0.54	4	2.06	1.30
8	성도이현 회계법인	60,800	0.13	4	2.06	1.10
9	한울 회계법인	67,784	0.15	2	1.03	0.59
10	대주 회계법인	53,100	0.12	1	0.52	0.32
11	회계법인 오현	42,000	0.09	1	0.52	0.30
12	세정회계법인	35,900	0.08	1	0.52	0.30
13	한미 회계법인	16,000	0.04	1	0.52	0.28
14	회계법인 현	12,000	0.03	1	0.52	0.27
15	원진회계법인	6,752	0.01	1	0.52	0.27
계		45,390,837	100.00	194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기업인수 · 매각 법률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 (백만원)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20,373,360	26.29	93	17.82	22.05
2	법무법인 태평양	12,603,747	16.26	60	11.49	13.88
3	법무법인 광장	9,233,015	11.92	80	15.33	13.62
4	법무법인 세종	11,137,050	14.37	60	11.49	12.93
5	법무법인 율촌	7,140,381	9.21	51	9.77	9.49
6	법무법인 지평	2,679,292	3.46	25	4.79	4.12
7	법무법인 화우	1,541,250	1.99	31	5.94	3.96
8	KL파트너스	1,584,693	2.05	27	5.17	3.61
9	법무법인 바른	1,600,486	2.07	7	1.34	1.70
10	법무법인 KCL	316,530	0.41	12	2.30	1.35
11	법무법인 세움	344,489	0.44	11	2.11	1.28
12	Baker & McKenzie	1,650,000	2.13	2	0.38	1.26
13	Greenberg Traurig, LLP	1,750,000	2.26	1	0.19	1.22
14	법무법인 린	496,129	0.64	9	1.72	1.18

기업인수 · 매각 회계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 (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삼일PwC	27,702,310	39.87	74	35.24	37.56
2	삼정KPMG	18,718,855	26.94	50	23.81	25.38
3	딜로이트 안진	11,579,831	16.67	35	16.67	16.67
4	언스트앤영 한영	9,760,933	14.05	27	12.86	13.45
5	선일회계법인	60,300	0.09	5	2.38	1.23
6	서우회계법인	243,279	0.35	4	1.90	1.13
7	현대 회계법인	757,700	1.09	2	0.95	1.02
8	성도이현 회계법인	91,501	0.13	4	1.90	1.02
9	한울 회계법인	56,384	0.08	2	0.95	0.52
10	Plante Moran	350,000	0.50	1	0.48	0.49
11	대주 회계법인	53,100	0.08	1	0.48	0.28
12	세정회계법인	35,900	0.05	1	0.48	0.26
13	태성회계법인	29,000	0.04	1	0.48	0.26
14	한미 회계법인	16,000	0.02	1	0.48	0.25
15	회계법인 현	12,000	0.02	1	0.48	0.25
16	원진회계법인	6,752	0.01	1	0.48	0.24
계		69,473,845	100.00	21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기업인수 · 매각 법률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 (백만원)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23,486,316	24.00	98	17.25	20.62
2	법무법인 태평양	19,233,845	19.65	65	11.44	15.55
3	법무법인 광장	14,113,524	14.42	85	14.96	14.69
4	법무법인 세종	11,410,909	11.66	66	11.62	11.64
5	법무법인 율촌	7,921,067	8.09	53	9.33	8.71
6	KL파트너스	2,836,610	2.90	30	5.28	4.09
7	법무법인 화우	1,155,722	1.18	33	5.81	3.50
8	법무법인 지평	2,389,292	2.44	23	4.05	3.25
9	Sullivan&Cromewell	4,906,156	5.01	2	0.35	2.68
10	법무법인 비트	206,500	0.21	15	2.64	1.43
11	법무법인 KCL	347,104	0.35	14	2.46	1.41
12	법무법인 세움	354,489	0.36	12	2.11	1.24
13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499,807	0.51	11	1.94	1.22
14	법무법인 린	496,129	0.51	9	1.58	1.05

15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471,700	0.61	9	1.72	1.17
16	ClearyGottliebSteen & Hamilton	1,064,492	1.37	3	0.57	0.97
17	Paul Hastings	925,600	1.19	2	0.38	0.79
18	법무법인 비트	70,500	0.09	6	1.15	0.62
19	법무법인 디라이트	107,432	0.14	5	0.96	0.55
20	법무법인 대륙아주	216,000	0.28	3	0.57	0.43
21	Ropes & Gray	355,000	0.46	2	0.38	0.42
22	Hunton Andrews Kurth LLP	450,000	0.58	1	0.19	0.39
23	법무법인 한결	71,469	0.09	3	0.57	0.33
24	DENTONS	307,400	0.40	1	0.19	0.29
25	MinterEllison	183,591	0.24	1	0.19	0.21
25	Ashurst	183,591	0.24	1	0.19	0.21
27	Sullivan&Cromewell	106,156	0.14	1	0.19	0.16
28	Sayenko Kharenko	90,000	0.12	1	0.19	0.15
29	법무법인 오킵스	89,959	0.12	1	0.19	0.15
30	법무법인 청신	50,000	0.06	1	0.19	0.13
30	TSMP Law	49,986	0.06	1	0.19	0.13
32	Fennemore Craig, P.C.	44,500	0.06	1	0.19	0.12
32	Fasken Martineau DuMoulin LLP	44,500	0.06	1	0.19	0.12
34	법무법인 지안	42,000	0.05	1	0.19	0.12
35	Dechert LLP	34,935	0.05	1	0.19	0.12
36	법무법인 오른하늘	25,550	0.03	1	0.19	0.11
37	Frederick W. Lee Law Firm	20,018	0.03	1	0.19	0.11
37	법무법인 시공	20,000	0.03	1	0.19	0.11
39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8,988	0.01	1	0.19	0.10
40	Lawplex Law Offices	6,752	0.01	1	0.19	0.10
계		77,490,540	100.00	52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15	법무법인 바른	469,796	0.48	7	1.23	0.86
16	Simpson Thacher & Bartlett	1,250,000	1.28	1	0.18	0.73
17	Baker & McKenzie	1,200,000	1.23	1	0.18	0.70
18	Paul Hastings	925,600	0.95	2	0.35	0.65
19	Ashurst	719,391	0.74	2	0.35	0.54
20	DENTONS	657,400	0.67	2	0.35	0.51
21	법무법인 디라이트	107,432	0.11	5	0.88	0.49
22	ClearyGottliebSteen & Hamilton	340,756	0.35	3	0.53	0.44
23	법무법인 대륙아주	216,000	0.22	3	0.53	0.37
24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358,988	0.37	2	0.35	0.36
25	Ropes & Gray	355,000	0.36	2	0.35	0.36
26	Willkie Farr & Gallagher	439,200	0.45	1	0.18	0.31
27	법무법인 한결	71,469	0.07	3	0.53	0.30
28	Kirkland & Ellis	350,000	0.36	1	0.18	0.27
28	Perkins	350,000	0.36	1	0.18	0.27
30	MinterEllison	183,591	0.19	1	0.18	0.18
31	Sayenko Kharenko	90,000	0.09	1	0.18	0.13
31	법무법인 오킵스	89,959	0.09	1	0.18	0.13
33	TSMP Law	49,986	0.05	1	0.18	0.11
33	법무법인 청신	50,000	0.05	1	0.18	0.11
35	Fennemore Craig, P.C.	44,500	0.05	1	0.18	0.11
35	Fasken Martineau DuMoulin LLP	44,500	0.05	1	0.18	0.11
37	Dechert LLP	34,935	0.04	1	0.18	0.11
38	법무법인 정행	30,000	0.03	1	0.18	0.10
39	법무법인 오른하늘	25,550	0.03	1	0.18	0.10
계		97,811,523	100.00	562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2019년 4분기 기업인수·매각 자료

기업인수·매각 금융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점유율(%)	건수
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2,126,497	15.45	4
2	딜로이트 안진	1,908,363	13.86	7
3	모간스탠리	1,824,898	13.25	2
4	크레디트스위스	1,527,080	11.09	3
5	BOA메릴린치	1,374,912	9.99	1
6	폴드만삭스	1,150,000	8.35	2
7	삼성증권	690,500	5.02	1
8	삼정KPMG	649,057	4.71	5
9	UBS	618,200	4.49	1
10	삼일PwC	576,047	4.18	9
11	HSBC	333,562	2.42	1
12	KR&Partners	332,700	2.42	6
13	언스트앤영 한영	216,000	1.57	3
14	Kidder Williams Ltd.	183,591	1.33	1
15	Otium Capital	165,033	1.20	1
16	Lazard	65,000	0.47	1
17	선일회계법인	26,600	0.19	3
계		13,768,041	100.00	51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기업인수·매각 금융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10,580,170	35.73	6
2	폴드만삭스	4,176,000	14.10	2
3	크레디트스위스	3,408,000	11.51	3
4	미래에셋대우	3,230,000	10.91	2
5	Lazard	2,565,000	8.66	2
6	JP모간	1,940,600	6.55	3
7	삼일PwC	915,147	3.09	10
8	UBS	618,200	2.09	1
9	딜로이트 안진	435,947	1.47	4
10	HSBC	333,562	1.13	1
11	KR&Partners	332,700	1.12	6
12	삼정KPMG	327,066	1.10	4
13	씨티글로벌마켓증권	319,997	1.08	1
14	Otium Capital	165,033	0.56	1
15	삼성증권	100,000	0.34	1
15	한국산업은행	100,000	0.34	1
17	언스트앤영 한영	30,000	0.10	1
18	큐더스	29,000	0.10	1
19	선일회계법인	5,500	0.02	1
계		29,611,922	100.00	51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기업인수·매각 회계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3,817,498	29.61	20	33.33	31.47
2	삼정KPMG	3,331,392	25.84	14	23.33	24.59
3	언스트앤영 한영	3,021,733	23.44	9	15.00	19.22
4	딜로이트 안진	2,427,540	18.83	10	16.67	17.75
5	선일회계법인	26,600	0.21	3	5.00	2.60
6	서우회계법인	200,000	1.55	2	3.33	2.44
7	대주 회계법인	53,100	0.41	1	1.67	1.04
8	한미 회계법인	16,000	0.12	1	1.67	0.90
계		12,893,863	100.00	6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기업인수·매각 회계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16,961,295	57.84	19	34.55	46.19
2	삼정KPMG	7,946,225	27.10	14	25.45	26.28
3	언스트앤영 한영	3,514,733	11.99	6	10.91	11.45
4	딜로이트 안진	671,047	2.29	10	18.18	10.24
5	현대 회계법인	100,000	0.34	1	1.82	1.08
6	대주 회계법인	53,100	0.18	1	1.82	1.00
7	태성회계법인	29,000	0.10	1	1.82	0.96
8	성도이현 회계법인	26,501	0.09	1	1.82	0.95
9	한울 회계법인	15,000	0.05	1	1.82	0.93
10	선일회계법인	5,500	0.02	1	1.82	0.92
계		29,322,401	100.00	5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기업인수·매각 법률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원)	금액 점유율	건수	건수 점유율	조정 점유율
1	김·장 법률사무소	5,310,390	24.74	25	15.63	20.18
2	법무법인 태평양	5,425,824	25.28	21	13.13	19.20
3	법무법인 광장	3,555,003	16.56	25	15.63	16.09
4	법무법인 율촌	2,081,062	9.70	15	9.38	9.54
5	법무법인 세종	1,240,399	5.78	11	6.88	6.33
6	법무법인 화우	714,047	3.33	12	7.50	5.41
7	법무법인 지평	552,075	2.57	9	5.63	4.10
8	KL파트너스	257,008	1.20	9	5.63	3.41
9	법무법인 린	468,153	2.18	6	3.75	2.97
10	법무법인 세움	284,389	1.33	7	4.38	2.85
11	Paul Hastings	618,200	2.88	1	0.63	1.75
12	법무법인 대륙아주	216,000	1.01	3	1.88	1.44
13	법무법인 KCL	51,605	0.24	4	2.50	1.37
14	법무법인 바른	140,812	0.66	3	1.88	1.27
15	법무법인 디라이트	55,373	0.26	3	1.88	1.07
16	MinterEllison	183,591	0.86	1	0.63	0.74
16	Ashurst	183,591	0.86	1	0.63	0.74
18	법무법인 오킴스	89,959	0.42	1	0.63	0.52
19	Frederick W. Lee Law Firm	20,018	0.09	1	0.63	0.36
20	법무법인 비트	15,000	0.07	1	0.63	0.35
21	법무법인 민주	0	0.00	1	0.63	0.31
계		21,462,500	100.00	16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기업인수·매각 법률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원)	금액 점유율	건수	건수 점유율	조정 점유율
1	김·장 법률사무소	9,367,356	23.72	30	17.65	20.68
2	법무법인 태평양	8,521,860	21.58	22	12.94	17.26
3	법무법인 광장	4,080,339	10.33	23	13.53	11.93
4	법무법인 세종	3,347,899	8.48	16	9.41	8.94
5	법무법인 율촌	3,732,359	9.45	14	8.24	8.84
6	Sullivan&Cromewell	4,800,000	12.15	1	0.59	6.37
7	KL파트너스	1,576,050	3.99	12	7.06	5.52
8	법무법인 화우	438,547	1.11	9	5.29	3.20
9	법무법인 세움	294,389	0.75	8	4.71	2.73
10	법무법인 지평	425,800	1.08	7	4.12	2.60
11	Simpson Thacher & Bartlett	1,250,000	3.16	1	0.59	1.88
12	법무법인 린	355,649	0.90	4	2.35	1.63
13	법무법인 바른	320,912	0.81	4	2.35	1.58
14	법무법인 KCL	80,980	0.21	5	2.94	1.57
15	법무법인 비트	31,000	0.08	4	2.35	1.22
16	Paul Hastings	618,200	1.57	1	0.59	1.08
17	법무법인 디라이트	55,373	0.14	3	1.76	0.95
18	법무법인 오킴스	89,959	0.23	1	0.59	0.41
19	법무법인 청신	50,000	0.13	1	0.59	0.36
20	법무법인 경행	30,000	0.08	1	0.59	0.33
21	Frederick W. Lee Law Firm	20,018	0.05	1	0.59	0.32
22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0,000	0.03	1	0.59	0.31
23	법무법인 민주	0	0.00	1	0.59	0.29
계		39,496,690	100.00	17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2019년 누적 M&A SOC · 부동산 자문

SOC · 부동산 금융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1	삼성증권	743,900	51.96	2
2	CBRE Global Investors	428,900	29.96	1
3	언스트앤영 한영	127,200	8.89	2
4	삼정KPMG	125,609	8.77	3
5	삼일PwC	6,000	0.42	2
계		1,431,609	100.00	10

SOC · 부동산 금융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1	BOA메릴린치	6,913,020	48.18	1
1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6,913,020	48.18	1
3	삼성증권	315,000	2.20	1
4	언스트앤영 한영	127,200	0.89	2
5	삼정KPMG	74,000	0.52	1
6	삼일PwC	6,000	0.04	2
계		14,348,240	100.00	8

SOC · 부동산 회계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삼정KPMG	1,616,614	84.24	7	63.64	73.94
2	언스트앤영 한영	127,200	6.63	2	18.18	12.41
3	삼일PwC	113,000	5.89	1	9.09	7.49
4	회계법인 성지	62,200	3.24	1	9.09	6.17
계		1,919,014	100.00	11	100.00	100.00

SOC · 부동산 회계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삼정KPMG	1,490,614	83.13	6	60.00	71.57
2	언스트앤영 한영	127,200	7.09	2	20.00	13.55
3	삼일PwC	113,000	6.30	1	10.00	8.15
4	회계법인 성지	62,200	3.47	1	10.00	6.73
계		1,793,014	100.00	10	100.00	100.00

SOC · 부동산 법률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법무법인 세종	4,733,759	24.60	30	27.03	25.81
2	법무법인 넥서스	3,224,401	16.75	25	22.52	19.64
3	김·장 법률사무소	3,370,634	17.51	24	21.62	19.57
4	법무법인 태평양	4,374,529	22.73	13	11.71	17.22
5	법무법인 광장	1,340,400	6.96	7	6.31	6.64
6	법무법인 율촌	1,570,578	8.16	5	4.50	6.33
7	법무법인 화우	200,000	1.04	1	0.90	0.97
8	법무법인 지평	120,000	0.62	1	0.90	0.76
9	법무법인 바른	113,000	0.59	1	0.90	0.74
10	법무법인 세한	65,000	0.34	1	0.90	0.62
10	법무법인 린	65,000	0.34	1	0.90	0.62
12	법무법인 유준	62,200	0.32	1	0.90	0.61
13	법무법인 KCL	6,950	0.04	1	0.90	0.47
계		19,246,452	100.00	111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SOC · 부동산 법률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법무법인 세종	6,316,248	23.79	31	26.27	25.03
2	김·장 법률사무소	4,318,672	16.27	30	25.42	20.85
3	법무법인 율촌	8,054,698	30.34	5	4.24	17.29
4	법무법인 넥서스	3,063,647	11.54	26	22.03	16.79
5	법무법인 태평양	3,517,270	13.25	12	10.17	11.71
6	법무법인 광장	645,400	2.43	7	5.93	4.18
7	법무법인 화우	200,000	0.75	1	0.85	0.80
8	법무법인 지평	120,000	0.45	1	0.85	0.65
9	법무법인 바른	113,000	0.43	1	0.85	0.64
10	법무법인 세한	65,000	0.24	1	0.85	0.55
10	법무법인 린	65,000	0.24	1	0.85	0.55
12	법무법인 유준	62,200	0.23	1	0.85	0.54
13	법무법인 KCL	6,950	0.03	1	0.85	0.44
계		26,548,086	100.00	118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2019년 4분기 M&A SOC · 부동산 자문

SOC · 부동산 금융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1	삼정KPMG	74,000	92.50	1
2	삼일PwC	6,000	7.50	2
계		80,000	100.00	3

SOC · 부동산 금융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1	삼정KPMG	74,000	92.50	1
2	삼일PwC	6,000	7.50	2
계		80,000	100.00	3

SOC · 부동산 회계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	-	-	-	-	-	-
계		-	-	-	-	-

SOC · 부동산 회계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	-	-	-	-	-	-
계		-	-	-	-	-

SOC · 부동산 법률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김·장 법률사무소	1,413,873	34.05	6	25.00	29.52
2	법무법인 세종	1,114,740	26.85	5	20.83	23.84
3	법무법인 넥서스	619,550	14.92	7	29.17	22.04
4	법무법인 태평양	911,120	21.94	4	16.67	19.30
5	법무법인 광장	93,200	2.24	2	8.33	5.29
계		4,152,483	100.00	24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SOC · 부동산 법률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	건수	건수점유율 (%)	조정점유율 (%)
1	법무법인 세종	2,697,396	44.38	6	21.43	32.90
2	김·장 법률사무소	1,745,073	28.71	10	35.71	32.21
3	법무법인 태평양	963,270	15.85	5	17.86	16.85
4	법무법인 넥서스	578,900	9.52	6	21.43	15.48
5	법무법인 광장	93,200	1.53	1	3.57	2.55
계		6,077,838	100.00	28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2019년 누적 합병·조인트벤처 자문

기업합병 금융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588,900	67.45	1
2	대신증권	101,565	11.63	4
3	한국투자증권	97,319	11.15	2
4	선일회계법인	48,681	5.58	1
5	삼정KPMG	36,600	4.19	1
계		873,064	100.00	9

기업합병 금융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4,790,000	42.53	1
1	콜드만삭스	4,790,000	42.53	1
3	한국투자증권	956,076	8.49	2
4	모간스탠리	588,900	5.23	1
5	대신증권	101,565	0.90	4
6	삼정KPMG	36,600	0.32	1
계		11,263,141	100.00	10

기업합병 회계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정KPMG	90,533	65.03	2	66.67	65.85
2	선일회계법인	48,681	34.97	1	33.33	34.15
계		139,214	100.00	3	100.00	100.00

기업합병 회계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딜로이트 안진	902,143	90.88	1	33.33	62.11
2	삼정KPMG	90,533	9.12	2	66.67	37.89
계		992,676	100.00	3	100.00	100.00

기업합병 법률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장 법률사무소	4,779,041	57.22	16	42.11	49.66
2	법무법인 광장	2,366,015	28.33	5	13.16	20.74
3	법무법인 세종	698,646	8.36	3	7.89	8.13
4	법무법인 율촌	269,351	3.22	4	10.53	6.88
5	법무법인 화우	33,068	0.40	4	10.53	5.46
6	법무법인 기현	117,919	1.41	2	5.26	3.34
7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43,484	0.52	2	5.26	2.89
8	법무법인 지평	37,387	0.45	1	2.63	1.54
9	법무법인 KCL	7,800	0.09	1	2.63	1.36
계		8,352,709	100.00	38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기업합병 법률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장 법률사무소	9,448,907	53.58	15	35.71	44.65
2	법무법인 세종	3,213,932	18.22	7	16.67	17.45
3	법무법인 광장	2,690,181	15.25	7	16.67	15.96
4	법무법인 화우	33,068	0.19	4	9.52	4.86
5	법무법인 태평양	1,044,250	5.92	1	2.38	4.15
6	법무법인 율촌	142,149	0.81	3	7.14	3.97
7	법무법인 KCL	902,143	5.12	1	2.38	3.75
8	법무법인 기현	117,919	0.67	2	4.76	2.72
9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43,484	0.25	2	4.76	2.50
계		17,636,032	100.00	42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2019년 4분기 합병·조인트벤처 자문

기업합병 금융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588,900	100.00	1
계		588,900	100.00	1

기업합병 금융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간스탠리	588,900	100.00	1
계		588,900	100.00	1

기업합병 회계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	-	-	-	-	-	-
계		-	-	-	-	-

기업합병 회계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	-	-	-	-	-	-
계		-	-	-	-	-

기업합병 법률 자문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장 법률사무소	866,752	35.57	5	41.67	38.62
2	법무법인 광장	1,322,696	54.28	2	16.67	35.47
3	법무법인 기현	117,919	4.84	2	16.67	10.75
4	법무법인 세종	116,800	4.79	2	16.67	10.73
5	법무법인 화우	12,721	0.52	1	8.33	4.43
계		2,436,889	100.00	12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기업합병 법률 자문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광장	1,381,358	45.43	3	33.33	39.38
2	김·장 법률사무소	399,801	13.15	3	33.33	23.24
3	법무법인 태평양	1,044,250	34.34	1	11.11	22.73
4	법무법인 세종	215,286	7.08	2	22.22	14.65
계		3,040,695	100.00	9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